

郑爱青(Zheng Aiqing) 교수의 「중국 경제성장 속의 사회 공정(公正): 할 일이 많고 갈 길도 멀다」에 대한 토론문

## 어떤 ‘노동’과 ‘노동자’가 우리 앞에 당도했는가?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Zheng Aiqing 교수께서 중국의 노동문제를 사회보장 문제와 연계해서 잘 정리해주셨다. 현대 중국의 역사 자체가 복잡하고 중층적인 성격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된다. 발표에서 ‘천도(天道)’를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민생에 대한 강조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合作社), 사회적 기업(社會企業), 도시재생(城市更新) 등 ‘사회’의 위기를 복구하려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도 ‘사회건설’ 혹은 ‘사회치리(治理)’라는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전례 없이 다양해졌다. 그 속에서 인민의 ‘참여’와 ‘커뮤니티’가 강조되는 것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은 상당히 위계화되어 있다. 노동의 판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그 판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주체는 반드시 당과 정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인민은 당-정이 만든 무대 위에서만 기량을 발휘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는 현재까지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다. (다른 무대를 만들고자 했던) 노동 NGO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탄압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발표 내용에 대해 이의를 달기보다는, 발표에 할애된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덜 강조되었던 문제에 대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발표된 Aiqing Zheng 교수의 발제문 「중국 경제성장 속의 사회 공정(公正): 할 일이 많고 갈 길도 멀다」에 대한 필자의 토론문과 토론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해, 또한 앞서 Supiot 교수님의 기조강연 주제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겠다. 저의 인류학 현지조사 경험도 일부 포함시켜 논의하겠다.

## ■ 중국 공회(工會)의 역할과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공회에 관한 논의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발표자가 중국에서 집체 담판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회의 역할과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회 무용론이 중국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 하면서 또 국가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신중국 성립 후 공회가 견지해 온 이중의 사명이 시장경제 도입 이후 계속해서 균열을 드러냈다. 그런데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공회 스스로 당과 정부의 전통적인 '전달 벨트'에서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기구로 변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노동쟁의가 활발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는 공회 간부 선출과정에서 직선제를 도입한다든가, 공회 직업화 간부제를 도입한다든가, 기층 노조의 설립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총공회 주도로 실시해왔다.<sup>1)</sup>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는 이 공회가 자기변신을 시도해 온 역사가, 2000년대 들어와서 훨씬 더 활발해진 중국 노동운동의 성과를 전유해온 경험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다. 중국의 노동운동은, 특히 홍콩과 연계되어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도에 광둥성 난하이 혼다 파업 당시에, 파업 지도부가 홍콩 노동 NGO의 조언을 받아서 광둥성 총공회와 개혁적 노동연구자들에게 협상 중재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광둥성 총공회가 대표적 노동운동가이자 인류학자인 潘毅(Pun Ngai)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존의 체제 외 노동 NGO를 참조하여 기층 공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험을 단행한 사례도 있었다. 제가 2014년과 2015년에 이 총공회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각종 실험 사례를 접하면서 흥미

1) 백승욱·조문영·장영석(2017), 「'사회'로 확장되는 중국 공회(노동조합): 광둥성 공회의 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1).

로웠던 것은 공회의 상급 지도부가 공회에 채용된 직업화 간부들을 공장으로 잠입시켰다는 점이었다. 노동자들과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직접 노동을 해보야 노동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노조가 왜 필요한지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이런 시도들이 기층 공회 설립까지 나아가기보다 임시적·미온적 프로그램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중국 공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거리이다. 중국 공회는 그냥 무용지물의 관변단체에 불과한가? 공회 간부가 곧 공무원인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노동조합을 '쟁취'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민주노총이 갖는 취약한 위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봤을 때 민주노총은 기업가들에게 배반당하는 것은 둘째 치고, 정부 여당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하에서 좁은 의미의 공정 담론과 능력주의를 삶의 준거로 체화하고 있는 다수 대중에게까지 편협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반면 제가 인터뷰했던 중국 공회 지도부들은 공회 조직이 갖는 다량의 자원과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노자의 적대적 대립을 넘어서는 제3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약하나마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쉬피오 교수님께서 ILO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듯이 노동과 자본의 중재자로서 중국 공회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쭙고 싶다.

## ■ 중국 '(임금)노동'을 둘러싼 지형과 '노동자' 주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과연 중국 사회에서 어떤 '노동'과 어떤 '노동자'가 우리 앞에 당도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노동에서 임금노동, 비임금 노동을 둘러싼 지형과, 노동자 주체성의 복잡한 측면을 논하고 싶다. 저는 박사논문을 하얼빈에서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중국 동북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빈곤화 과정에 대해 썼다. 그리고 2012년 말부터는 중국 남부의 폭스콘 공장지대에서 노동자들이 중국의 사회정책 안으로 포섭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제도 앞에 '중국 특색'이란 수사를 붙일 만큼 자체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어 특수한 ‘예외’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에 우리 세계의 어떤 노동의 전망을 예견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실험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의 복잡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역의 불균등 발전과 역사적 궤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선 중국 동북 지역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노동계급(工人階級),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자격 있는 ‘인민’으로서 과거 사회주의 당-정부 및 단위(單位)와 인격적인 유대를 분명히 맺어온 측면이 있다.<sup>2)</sup> 하지만 동남부 연해지역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공(農民工)’으로, 세대에 걸쳐 박탈의 경험을 체화하고 있다. 노동운동가이자 독립연구자인 뤼투(려도)는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과 노동운동의 글로벌라이제이션하에서 고투하는 이들을 (전통적 단위체제하의 노동계급과 구분하여) ‘신노동자’라 명명한 바 있다.<sup>3)</sup>

한편에서 중국은 국가사회주의 역사를 거치면서 노동윤리라는 것을 인간 정상성의 지표로 훨씬 더 견고하게 고착화한 측면이 있다. 2000년대 초 중국에서도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최저생활보장제도(일명 띠바오(低保))’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수립되자마자 ‘노동하지 않고 국가에 기생하는 자’에 대한 경멸을 담은 ‘띠바오족(低保族)’이라는 수사가 유행했다. 그럼에도 대도시의 엘리트 청년이나 귀촌청년(返乡青年) 일부는 (현재 한국에서 흔히 관찰되듯) 노동을 거부하고 자율적 삶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한편에서는 최근 Jasic(제이식) 투쟁에서 보듯, 중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마오좌파’임을 선언하면서 공장 노동자들과 수평적인 연대를 도모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까지 등장하고 있다.<sup>4)</sup>

제가 만난 중국의 노동 NGO 활동가들은 저에게 여전히 전태일에 관해 얘기하고, 중국어로 번역된 『전태일 평전』이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이 중국 노동운동에서 일종의 ‘성경’이 되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같은 중국에서 공익 관련 운동을 주도하는 또 다른 NGO 활동가들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소셜벤처 등에 더 관심이 많고, 이런 부문에서 한국과 긴밀한 유대를 맺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 복잡하게 돌출되는 형국이다.

2) Mun Young Cho(2013), *The Specter of "The People": Urban Poverty in Northea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3) 뤼도(정규식·연광석·정성조·박다짐 역)(2017),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서울: 나뭇잎스).

4) 장윤미(2019), 「중국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경험 및 기억의 전승」, 『중국사회과학논총』 1(1).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전태일 시대의 한국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 또한 정보, 지식, 관계, 정동(affect)을 생산하는 비물질 노동(immaterial labor)이 물질노동(material labor)과 병존하고 있다. 성장 담론과 탈성장 담론이 동시에 출몰하는 형국이기도 하다. 그 와중에 IT 기술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디지털 세계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공짜’ 노동을 수행하는 ‘프리레이버(free labor)’가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중국’과 ‘서구’를 이분법적으로 구획하고, ‘중국’의 다름을 강조하는 접근이 오히려 중국의 노동환경으로부터 새로운 통찰을 끌어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이어서 제가 폭스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초부터 진행 중인 문화기술지(ethnography) 작업에서 확인한 몇 가지 논점, 이들의 궤적을 좇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한 여성 노동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노동 궤적을 6년여의 시간 동안 살폈다. 이 여성은 선전(심천)의 폭스콘 공장에서는 그야말로 기계부품처럼 취급받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의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다. 2010년 폭스콘 노동자 연쇄자살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고통을 ‘사회’에서 치유하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겼다. 사회공작(사회복지)이 대표적인데, 폭스콘 공장 인근에 설립된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서는 폭스콘 노동자들을 자원활동가(발런티어)로 초대하여 공익활동을 펼쳤다. 노동자로서의 권익 추구 대신 도시와 사회를 돌볼 책무를 도시 호구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지만, 자원노동(volunteer labor)<sup>5)</sup>은 이 여성을 포함해 많은 폭스콘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인정과 소속감을 제공했다.<sup>6)</sup> 폭스콘에서의 공장 노동과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자원노동을 동시에 수행했던 이 여성은 다른 자원활동가의 권유로 폭스콘을 그만두고 보험판매를 시작했다. 보험판매는 기본급 없이 수당만 제공하는 업종이었지만, 이 여성은 공장의 ‘종속’과 보험판매의 ‘자유’, 공장일의 ‘단순함’과 보험업종의 (새로운 인간관계, 교육기회, 출장여행 등) ‘풍요로움’을 대조하며 서비스업의 불안정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인맥을 구축해

5) Andrea Muehlebach(2012), *The Moral Neoliberal: Welfare and Citizenship in Ital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 조문영(2017),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 속 농촌 출신 청년 노동자의 삶」, 박철현 편,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2』(고양: 역사비평사).

야 보험상품을 잘 팔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공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렇게 공장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본업을 보험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계처럼 취급당한다는 것을 그다지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보험판매도 잘 안되고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주유소에서, 다음에는 소규모 의복공장에서 일하고, 분배노동(distributive labor)<sup>7)</sup>을 열심히 수행했다.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불안한 성취’를 이뤄내고, 선전으로 돌아와 남편과 폭스콘 공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중국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이커머스(e-commerce, 微商)를 부업으로 수행 중이다. 한때는 보험판매와 관련된 각종 인생 조언과 정보들로 넘쳐났던 이 여성의 SNS(위챗)은 이제는 자신이 대리 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소개로 빼곡히 채워지고 있다. 짧은 시간의 궤적을 엿본 것뿐이지만, 한 인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공장노동, 서비스노동, 자원노동, 분배노동 등을 복잡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노동자라는 정체성, 계급이 갖는 함의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궤적을 보면, 1960년대 이탈리아 자율주의 학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오 트론티(Mario Tronti)가 주장했던 것처럼, ‘공장’이라는 것이 특정한 작업장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론티는 전체 사회 속에서 잉여가치의 수탈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쉬피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기술변화 속에서의 노동은, 더 많은 착취를 양산하기도, 또 더 많은 자율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노동자들의 궤적을 쫓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현재 중국에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노동자의 사회적 고통과 불평등은 스냅샷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평등과 사회적 고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정이고 분투(鬪爭)다. ‘struggle’인 것이다. 즉 중국이든 한국이든 개별 공장을 넘어선 이 사회적 공장지대에서 노동자들을 단순히 기계로, 노예로, 짐승으로 취급하고 일방적으로 억압하기보다는, 이들의 열망을 부추겨내는 방식으로 세련된 착취가 수행된

7) 제임스 퍼거슨(조문영 역),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서울: 여문책).

다는 점이다.<sup>8)</sup> 자원봉사활동부터 각종 서비스 직종, 인터넷에서의 Free labor는 물론 가족에서의 돌봄노동/분배노동까지, 이러한 형태의 노동이 공장노동과 결합되면서 노동자들의 삶-노동 궤적을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21세기 노동, 노동자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 ■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Zheng 교수의 발표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ILO 100주년 학술대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하고 싶은 두 가지 주제가 있다. 첫째는 영토성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의 이동성(mobility)이 삶의 양식이 되고 노동(자)의 취약성(precaarity)이 삶의 공통 감각이 된 시대에 영토성(territoriality)에 기반을 둔 노동 ‘운동’과 ‘제도’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사회보장도 당연히 주요한 논제로 포함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중심주의가 도전에 직면한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얘기했던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의 함의는 어떻게 더 정교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진보 진영에서든 보수 진영에서든, 20세기의 노동은 확실히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하에서 그 논리가 구축되어 왔다. 하지만 이 이분법을 온존시킬 경우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진정으로 지구에서 만물이 공생할 수 있게 하는’ 노동과 배치되기 쉽다. 생산과 노동의 아주 긴밀한 관계들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KLI**

8) Mun Young Cho(2018), “The Passionate Poor: Foxconn Workers Invited as Volunteers,” Dorothy J. Solinger, ed. *Polarized Cities: Portraits of Rich and Poor in Urban China* (Lanham: Roman & Littlefield).